

트라우마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갈수록 급증

광주·전남 2년만에 2배 늘어
광주 30대 근무지서 극단 선택
5년간 전국서 56명 목숨 끊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는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참혹한 현상이나 동료 죽음과 맞닥뜨리는 일이 많은 뿐만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방당국은 물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30대 소방공무원이 근무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

했다. 1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 근무하는 A소방관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근무지 물품창고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한달 전 가족에게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A씨와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2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의심되는 소방관은 총 201명(광주 62명·전남139명)이다. PTSD의심증상을 보이는 광주지역소방관은 2017년 30명에서 2018년 64명, 2019년에는 62명으로 늘었으며, 전남도도 2017년 66명에서 2018년 121명, 2019년 139명으로 증가세다.

소방청에서 올해 1월 발간된 '2020년 주요 소방정책'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56명이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총 4명이다.
지난해 소방청의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상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의 4.9% 가량인 2453명이 자살위험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직원은 1556명(3.1%)에 달했다. 특히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0.1%인 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자살 위험군의 PTSD 비율은 54.7%로 전체 평균(5.6%)의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장애 비율도 81.1%로 전체 평균(25.3%)의 3배 수준이었다.

현장 소방관들도 PTSD와 수면 패턴 문제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안전 본부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적인 현장 상황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균형이 소방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 "복합적인 원인이지 않지만 경찰이나 소방은 타직종에 비해서 교대근무가 많고, 참혹한 현장도 봐야 하고, 동료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또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총장님과 마음, 손맛 함께 나눠요.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16일 오전 대학 무등관 앞에서 '총장님과 마음, 손맛 함께 나눠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선재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전남경찰, 학대 우려 아동 전수 조사

아동학대 사건 대응전략 추진

광주·전남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사건 처리 체계 재정비와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지원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9일까지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이 학대 우려아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아동은 모두 55명이다.

전남경찰청도 아동학대 신고를 '코드'로 분류해 대응키로 했다. 전남경찰은 93명을 학대 우려아동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아동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를 우선하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데 따라 법률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협업과정 등 대응체계를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심 수놓을 여름꽃. 1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낼 메리골드와 페추니아, 백일홍 등 여름꽃을 차량에 싣고 있다. 북구는 여름꽃 7종을 관내 가로화단과 동행정복지센터 주변 취락지 등에 심을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교육감 친인척 인사교류 의혹 해명해야"

'학벌없는 사회' 촉구

전남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광주시교육감의 친인척이 광주로 전입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6일 자료를 내고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의 친인척 A씨가 2017년 7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공직사회에서 일었다"며 전입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도간 공무원 전입·전출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친

인척이 선호지역으로 들어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주변인에 대한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감독 행정을 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통상적 교류인사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상호 교류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 인사'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교류는 전남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했고, 당시 광주로 전입된 인원과 전출된 인원이 모두 5명에 달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산학협력 호남·제주권 최고대학

4차년도 평가 최우수 성적

호남대학교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링크플러스)사업 4차년도 평가에서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는 지난해 37억 9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올해 지원받는다.
링크플러스는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산업체,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애로 사항 해결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해내고 학생들의 취·창업율을 제고하는 자·산·학(地·産·學) 협력 사업이다.
광주지역 유일의 교육부 선정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그동안 지

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사립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링크플러스사업을 통한 맞춤형(실무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제고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학협력의 선도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00여개의 가족회사와 긴밀한 산학협력을 추진해 온 호남대학교는 지역의 3대 특화사업인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ICT융복합을 통한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미래자동차ICC, 에너지신산업ICC, 문화콘텐츠ICC, 인공지능ICC를 통해 기업집중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교육청 원도심 고교 남약 이전 추진

목포·무안 학부모 등 설문조사

전남교육청이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적정 배치를 위해 원도심 기존 학교를 인근 남약신도시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규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약신도시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1차로 원도심 기존 학교 한 곳을 남약신도시로 이전·재배치하는 안을 마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목포시와 무안군 소재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온라인(링크를 통한 웹조사, 모바일 QR코드 접속 가능)을 통해 진행되며, 학교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탑재하고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추진 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되며, 도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남약신도시 내 일반고 신설 수요에 대처하는 등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유입 학생의 적정배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목포지역 고등학교와 학생수는 15개교(일반고 11, 특성화고 4)에 7380명이며 무안지역은 5개 고교(일반고 3, 특목고 2)에 2156명이 재학 중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